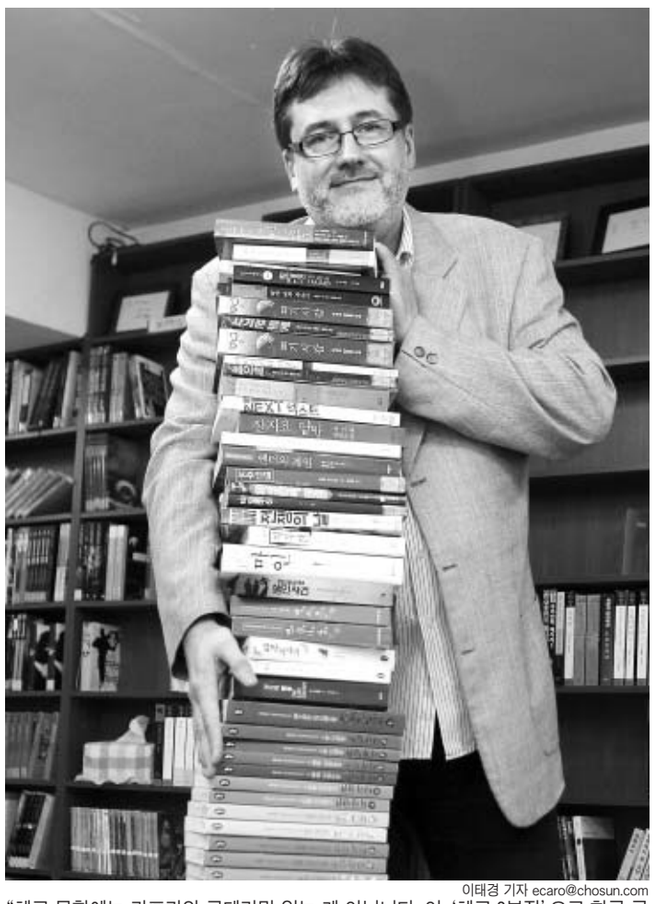
SF마니아 체코대사, 한국독자와 만나다

〈공상과학소설〉

체코 SF 걸작선 펴낸 야로슬라브 올샤 2세

나이트클럽 일하던 청년시절 낮에는 SF 번역에 빠져살아 "SF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계 누구와도 친구됩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체코 문학에는 카프카와 쿤데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체코 3부작'으로 한국 국민들이 체코를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F 평론가이기도 한 야로슬라브 주한 체코대사가 19일 서울 사당동 SF & 판타지 도서관을 찾았다.

주한 체코대사 야로슬라브 올샤 2세(47·Jaroslav Olsă, jr.)가 190㎝ 가까운 거구를 절반 가까이 숙였다. 19일 오후 서울 사당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자리잡은 'SF & 판타지 도서관'. 좁은 계단 입구는 대사가 허리를 펴고 내려가기에는 턱없이 낮았다. 이날은 대사가 직접 편집자로 작품을 고르고 해설을 쓴 '체코 SF 걸작선-제대로 된 시체답게 행동해!'(행복한 책읽기 출간)의 '독자와의 만남'이 있는 날. 장르 소설 마니아들이 사비를 털어 마련한 소박한 도서관이지만, '대사님'은 넥타이 풀고 셔츠 소매 걷은 뒤 열 일 제쳐놓고 달려왔다. "에티오피아에서도, 베트남에서도, 한국에서도 SF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친구가 된다"는 대사의 말에 장르 독자들은 두 손 들어 환호했다.

2008년 한국에 부임한 그는 열혈 SF 마니아. 외교관이 되기 전인 1986년에는 직접 SF잡지 '이카리에'를 창간했고, 이 잡지는 체코 SF 클럽이 수여하는 체코 최고의 잡지로 꼽히기도 했다고 한다. 'SF문학 백과사전'과 '25개국 SF소설 선집'을 번역해 펴낸 것도 그 무렵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이력서에 나이트클럽 조명기사도 한 줄 있다는 것. 그 대목을 묻자 대사는 껄껄 웃었다.

1989년 공산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체코 국민들은 무조건 '일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정치범으로 수감된 경력이 있던 할아버지 등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던 이 19세 청년에게는 호텔 나이트클럽 조명기사 일감이 주어졌다. 전화위복이랄까. 밤에만 일하고 낮에는 자유시간이 많았다. 결국 그 '낮'이 이 청년을 1급 SF 평론가와 번역가로 만들었다. 그는 "정말 열심히 SF를 번역하고 해설을 쓰던 시절"이라고 추억했다.

공산정권이 붕괴되고 1992년 외교관이 된 그는 이후 부임했던 나라마다 '문학'을 통한 문화 교류에 나섰다. 인도에서는 '흡혈귀 외 체코 SF소설집'(1994)을 편집해 출간했고, 직전 부임 국가였던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도 역시 그 나라 말로 SF 선집을 편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벌써 세 권째. 체코가 자랑하는 세계적 작가인 카프카 등의 작품을 모은 순수문학 선집인 '프라하'와 '체코 단편소설 걸작선'을 상반기에 펴냈고, 이번에는 SF선집까지 펴내게 된 것이다. 또 단순히 체코 문학을 알리는 일방적 홍보를 넘어, 한국문학을 체코에 소개하고 알리는 상호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체코에서 출간된 한국 시와 소설 번역본 30여종을 대부분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한국문학 애호가이기도 하다.

문학과 SF를 이야기할 때 그는 처음 인사말을 나눌 때보다 두 배 가까운 스피드와 열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나 경제 교류에 관한 인터뷰를 할 때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대답하느냐고 묻자, 그때서야 한 템포 호흡을 줄인 뒤 "물론 그렇다"며 천연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수웅 기자 jan10@chosun.com

"쓰촨성 돕는 한국 모습에 이끌려 봉사왔죠"

韓·中 대학생 봉사단 '써니'

강릉=김지환 객원기자 nrd1944@chosun.com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이 강원도 강릉 해살이마을에서 빗물가리개와 야외 의자를 만들고 있다.

2003년 시작 대학생 봉사단 폭설 피해 입은 해살이마을 한·중 단원들 환경정비 나서 벽화·빗물가리개 등 만들어

'뚝딱뚝딱, 쓱~싹, 윙~'.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의 한적한 시골마을이 시끄러운 망치질과 톱소리로 요란해졌다. 21일 강릉시 사천면 해살이마을. 한과와 개두릅으로 유명한 해살이마을에 한·중 대학생 36명이 찾아와 농촌일손과 마을 환경정비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Sunny)' 단원들로, 써니는 '선한 이'를 빨리 발음하면서 착안한 이름이다. 지난 2003년부터 운영 중인 국내 최대 대학생 자원봉사 단체다. 해살이마을 봉사활동은 써니의 2011 글로벌 캠프 행사의 하나로, 작년 9월 발족한 중국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 단원과 한국 단원들이 힘을 모았다.

이날 봉사활동에 나선 여학생들의 붓이 지나간 벽과 창고에는 꽃과 해, 바다를 형상화한 그림이 살아나면서 화사하게 변했다. 남학생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활용해 주민들이 편히 앉을 수 있는 벤치를 만들었다. 커다란 통나무를 굴려와 엔진톱으로 자르고 사포로 문질러 벤치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직접 재단했다. 나무에 형태를 잡고 서툴지만 단단하게 못을 박아 자연과 어우러진 벤치를 3시간 만에 완성했다. 한쪽에서는 해살이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휴양지 식당의 빗물가리개를 만들고 있었다. 학생들 대부분이 처음 경험하는 목공 일이었지만 손 다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값진 땀을 흘렸다.

써니 단원들은 지난 19일에도 해살이마을을 찾아 단무지용 무밭에서 무를 심고 엄나무 밭을 정리하는 등 농촌 일손돕기에도 나섰다.

활동 마지막 날인 21일 오후 이들은 불고기와 감자전은 물론 닭요리와 토마토 계란볶음 등 중국 학생들이 직접 만든 중국 음식을 주민들에게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인가요 메들리와 중국 전통노래에 어우러진 춤사위도 선보였다.

천보(陳波·23·성도대학 3년)씨는 지난 2008년 쓰촨성(四川省) 대지진 때 한국 봉사단의 활동을 보고 써니의 단원이 됐다. 그는 "대지진으로 집이 무너졌을 때 한국 봉사단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 써니에 참여했다"며 "당시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써니 베이징팀장인 리청시(李成熙·22·중국청년정치학원 2년)씨도 "한국 친구들과 같이 농사일도 하고 목공 일도 하면서 우정을 나눴다"며 "한국 문화도 배우며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써니 글로벌 캠프 단원들은 지난 7월에는 중국 베이징, 쓰촨성, 상하이를 찾아 장애우를 위한 친환경 집 짓기, 지진 피해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교 환경정비와 교육, 도시 농민공 지역 학생 교육 도우미 등의 활동을 벌였다. 중국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것이다.

SK텔레콤 장지혜 매니저는 "이번 행사를 봄부터 준비하면서 지난겨울 폭설 피해를 입었던 강릉 해살이마을을 선택했다"며 "봉사활동 내용은 '참여와 이해'라는 써니의 모토에 맞게 학생들이 처음부터 토의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릉=홍서표 기자 hsp@chosun.com

6·25 전장에 묻힌 청년, 60년만에 졸업장

성균관대 명예졸업 한상호씨 22세때 강원도 전투서 전사

"60년 만에야 오빠에게 졸업장을 드릴 수 있게 됐네요."

한상현(62)씨는 6·25전쟁 당시 22세로 전사한 오빠의 이름을 꺼내면서 울먹였다. 오빠 상호〈사진〉씨는 1951년 성균관대 정경학부 법률학과에 입학했지만, 1952년 3월 육군보병학교에 입교해 6·25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상현씨는 "오빠는 부모님이 군사학교 입대를 반대하자 친구 아버지께 대신 허락을 받아 전장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상호씨는 보병학교에서 간부후보생으로 졸업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전선을 누볐다. 가족들은 상호씨가 무사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1953년 7월 15일 전사 통지서가 도착했다. 상호씨는 가장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였던 강원도 금화 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상현씨는 "어머니는 그해 여름을 잊지 못하고, 매년 여름만 되면 입이 허는 등 오빠를 사무치게 그리워했다"고 말했다.

상호씨는 1961년 9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립현충원 현충탑 장교 구역에 위패가 봉안됐다. 상현씨는 "유골도 못 찾은 오빠의 성균관대 학생증을 봤을 때 가슴이 아팠다"며 "올해 현충일에 현충원을 찾았을 때 다른 전사자의 위패에 육군사관학교 명예졸업장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성균관대에 오빠의 명예졸업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상호씨는 오는 25일 열리는 성균관대 201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입학한 지 60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게 된다. 유족들은 이 졸업장을 현충원에 있는 위패 옆에 둘 예정이다. 상현씨는 "오빠도 졸업장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는 4·19혁명에 참가하고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 졸업을 하지 못한 최동화(71)씨에게도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성민 기자 dori2381@chosun.com

원더걸스, 미국 TV영화 주인공 된다

청소년 채널 '틴 닉'에서 방영 올 10월 촬영… 내년 첫방송

아이돌 걸그룹 원더걸스가 미국 TV용 영화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원더걸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1일 원더걸스를 주인공으로 한 TV 영화 '원더걸스 앳 디 아폴로(Wondergirls at the Apollo)'가 내년 1분기 미국 인기 TV 채널인 틴 닉(Teen Nick)에서 방영된다고 밝혔다. JYP는 "JYP와 영화 제작사 엔크레더블(대표 닉 캐넌)이 지난주 비아컴 MTV 네트워크의 청소년 TV 채널 틴 닉과 '원더걸스 앳 디 아폴로'의 방영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닉 캐넌은 가수 머라이어 캐리의 남편으로, 배우 겸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틴 닉은 미국에서 7000만 가구 이상이 시청하는 채널이다. JYP는 아시아 가수가 주연배우로 나오는 일은 미국 TV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라며 "닉 캐넌이 원더걸스의 미국내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영화 제작을 맡았다"고 전했다.

영화 촬영은 10월 시작된다. JYP는 "영화는 내년 1분기 중에 첫 방송된 이후 총 6회 이상 방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원더걸스는 영화 방영에 맞춰 OST 형태로 미국 데뷔 앨범을 발매할 계획이다.

채민기 기자 chaepline@chosun.com

故 윤일선 박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한국 최초의 병리학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한국 최초의 병리학자인 고(故) 윤일선(尹日善·1896~1987) 박사를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28번째 헌정 대상자로 선정했다.

윤 박사는 일제강점기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병리학을 비롯한 기초의학 전반을 정립하는 등 우리나라 의과학의 기틀을 다졌다. 그는 최초의 우리말 학술지인 조선의보 창간에 참여했으며, 해방 후 경성대학 의학부장,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내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의 정립을 주도했다. 대한민국학술원 초대 회장, 원자력원 원장,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도 역임했다.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은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과천과학관에 있는 명예의 전당에는 현재 세종대왕·장영실·허준·우장춘 등 27명이 헌정돼 있다.

이영완 기자 ywlee@chosun.com

부음

홍석준 조선일보 정치전문기자

홍석준(49) 조선일보 정치전문기자가 20일 오후 5시 30분 지병으로 별세했다. 홍 전문기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정치부 기자 등을 거쳐 스포츠부장을 역임했다. 발인 23일 오전 7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02)3410-6927

▶김구자 前 이화여대 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별세, 김일영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모친상, 유한욱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장모상=20일2시4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8시, (02)3010-2292

▶김윤식 前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장 별세, 김선희 前 분당 구미중 교장 남편상=21일4시15분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3일9시, (031)787-1506

▶박찬호 한국지엠자동차 성산대리점 대표 별세, 강수자 연희초 교사 남편상, 박소영 서강대 대학원생 부친상=21일10시5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10시, (02)2227-7577

▶유경손 원로성악가 별세, 나건·효선 동덕여대 음대 교수·효진 前 교사 모친상=20일16시1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8시, (02)3410-6914

▶이진석 前 삼성비서실장 별세, 재원 미국 거주 부친상, 최영하 지댄스 대표이사·송영신 라파바이오 본부장 장인상=21일8시40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발인 23일8시, (02)2227-7566

▶정진욱 前 서면중고 교장 별세, 희목 前 미국 연방원자력연구소 수석연구원·현목 미국거주·영목 서울대 미대 교수·명자 前 동명여고 교사·명희 前 혜원여고 교사·명란 前 혜원여고 교사 부친상, 정진우 사업·김영 前 은행원·권용주 미국 건축설계사 장인상, 이혜정 前 성악가·유동마리아 前 프랑스대사관 근무·이승신 건국대 상경대 교수 시부상=19일 15시30분 서울대병원, 발인 23일8시, (02)2072-2011

▶이서구 前 삼성그룹 비서실장 별세, 성우 대동켐텍 회장·복우 자영업·능우 대동유통 대표·몽우 펜텍 감사·기우 프리마키 대표이사 부친상, 송상윤 상고 대표이사 장인상=21일 13시5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7시30분, (02)3410-6902

▶전대웅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별세, 민 신경정신과 의사·윤희 약사 부친상, 박종근 산부인과 의사 장인상, 이혜숙 TBN강원교통방송 편성제작국장 시부상=21일6시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23일6시, (053)956-4416

▶염명훈 의정부 동남고 교사 부인상=21일12시 의정부 백병원, 발인 23일8시, (031)844-4450

▶신재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재국 사업 부친상, 최재일 사업·이경철 사업 장인상, 신우진 미국변호사·규진 SK 과장 조부상=21일0시 신촌세브란스 병원, 발인 24일6시, (02)2227-7580

▶이종승 현대증권 종로지점장·종성 이종성 치과의원 원장 부친상=21일13시30분 신촌세브란스, 발인 24일7시30분, (02)2227-7587

▶강정용 롯데칠성음료 남부지사장·성숙 신촌세브란스 안이병원 파트장 부친상=21일18시1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12시, (02)3010-2232

▶김동영 前 로케트전기 사장·칠영 前 국민은행 지점장·창영 선진사료 순창대리점 대표 부친상, 안숙재 교사 시부상, 김주형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연구원·주완 한국경제신문 기자 조부상=20일11시30분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22일10시30분, (062)250-4413

▶김규련 동서울세무법인 근무·규인 미주 상무 모친상=20일4시40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5시30분, (02)3410-6917

▶장석웅 에스이피엔시 회장·석종 아이존 대표·원 삼주KSP 대표 모친상, 손원일 강원대 교수 장모상=20일9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6시, (02)3410-6915

▶강학원 오션인포 대표이사·홍원 한라산업개발 사우디 지사장·승원 회사원·연희 주부 모친상, 유인근 장모상, 박영옥 주부·이동강 주부·이숙희 주부 시모상=21일7시43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5시, (02)3410-6903

▶박수진 SBS드라마PD 모친상=20일10시15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8시, (02)3010-2291

▶엄한주 성균관대 학생처장 모친상=21일9시20분 평촌 한림대병원, 발인 23일8시, (031)386-2345

이인수씨,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

이인수(57) 인천항만공사(IPA) 항만위원회 위원이 제6대 항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운물류본부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거쳐 현재 한국 해운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길영씨, 미중서부한인회연합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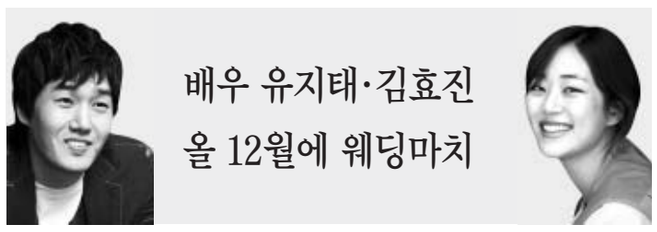
김길영(53) 미중서부한인회연합회 이사장이 제11대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미중서부한인회연합회는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13개 주의 26개 한인회 연합 조직이다. 김 회장은 시카고 한인회 26, 27대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미주총연 사무총장 겸 행정부회장을 맡고 있다.

플라자

◆박찬욱 한국정치학회 회장(서울대 교수)은 23~25일 인천 송도 인천대에서 '세계 속의 한국정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201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를 연다. 23개 국가에서 392명의 정치학자가 참석해 256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한다. 개회식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축사와 김학준 단국대 이사장, 슈테판 해거드(Haggard) UC 샌디에이고 교수의 기조연설이 있다.

인사

◆조선영상비전▷대표이사 임현찬



5년간 공개 열애해온 배우 유지태(35)와 김효진(27)이 12월 2일 결혼한다고 양측 소속사가 21일 밝혔다. 소속사는 "최근 양가 상견례를 가졌으며 결혼식 장소 등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2003년 한 의류업체 광고모델로 처음 만나 2006년 말부터 교제하기 시작했다.

모델 출신인 유지태는 1998년 영화 '바이준'으로 데뷔, '주유소습격사건' '올드보이' '봄날은 간다' 등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단편영화 여러 편을 연출하는 등 영화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효진도 패션모델로 데뷔해 영화 '누구나 비밀은 있다' '오감도'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내년 방영 예정인 한·중·일 합작 드라마 '스트레인저6'를 촬영하고 있다.

박세미 기자 runa@chosun.com

팝핀 여고생 주민정, 코리아 갓 탤런트 우승

'한국 폴포츠' 최성봉씨는 2위

여고생 팝핀(몸을 튕기면서 추는 춤) 댄서 주민정(17·사진)양이 케이블채널 tvN의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우승했다.

20일 밤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결승전은 100% 시청자 문자 투표로 우승자를 가렸으며 주양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주양은 상금 3억원과 크로스오버 자동차를 받게 된다. 주양은 이날 금색 의상을 입고 힘 있는 댄스를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우승해 기쁘다"며 "부모님과 춤을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섯 살 때 고아원을 나와 껌팔이와 막노동을 하면서 노래 실력을 키워 외신에 '한국의 폴포츠'로 소개됐던 최성봉씨는 2위를 차지했다.

채민기 기자